

백석대, 2021학년도 수시모집 2천553명 선발 모든 모집단위 교차지원 가능



백석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2천553명, 정원 외 180명을 선발한다. 학생부 100%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으로 일반전형,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전형, 지역인재1전형이 있으며, 학생부 60%와 면접 40%로 선발하는 백석인재전형이 있다.

학생부 교과 영역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·수학·영어·사회(국사 포함)·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 전 과목을 석차등급으로 반영한다. 학생부종합전형(창의인재전형, 지역인재2전형)은 전년보다 모집 인원을 크게 늘려 329명을 모집한다. 모든 전형에서 문·이과 교차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하며,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.

백석대는 정원 내에서 일반전형 1천77명,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전형 133명, 지역인재1전형 210명, 백석인재전형 772명, 창의인재전형 284명, 지역인재2전형 45명, 체육 특기자 18명을 선발한다. 또 정원 외 전형(180명)으로 특성화 고교전형, 농어촌학생전형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, 서해5도민 특별전형이 있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원 외 전형 지원을 우선 고려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학생부종합전형인 창의인재전형은 면접 평가를 폐지해 '서류평가(학생부, 자기소개서)' 100%로 선발하며, 모든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.

수시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23일(수)부터 9월 28일(월)까지며, 면접·실기교사는 수능일 이전인 11월 5일(목)부터 11월 10일(화)까지 진행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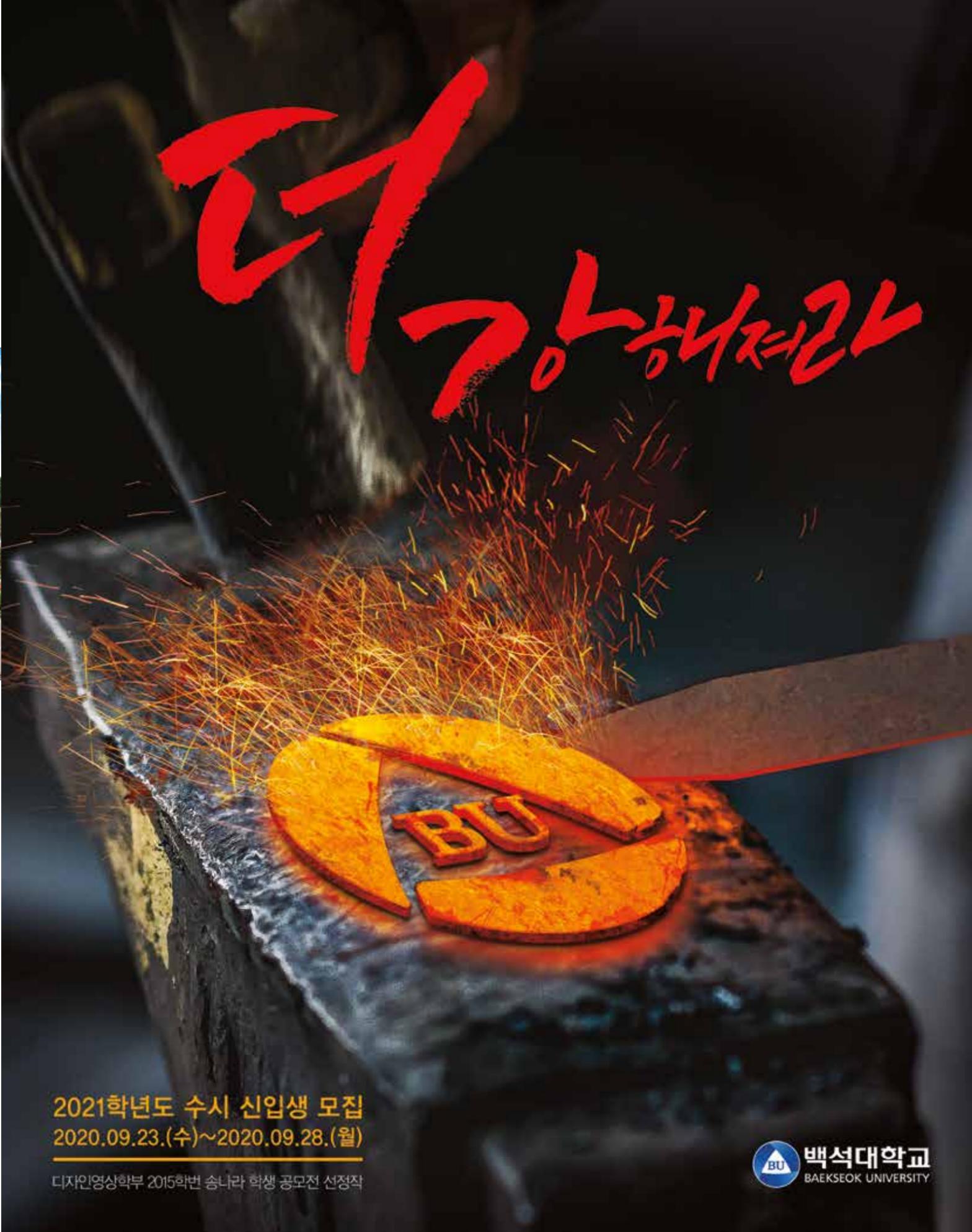
백석대는 2021학년도 13개 학부 51개 전공에 걸쳐 정원 내·외 총 3천

1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, 약 1만2천여명의 재학생의 총의를 모아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대학 중 하나다.

백석대는 전체 재학생 중 30% 내외의 학생들이 복수전공 및 다중전공을 신청할 정도로 복수전공제도를 체계화했다. 특히 졸업 시 두 개 이상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다. 기독교학부, 어문학부, 사회복지학부 등 일반 전공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일반 전공의 졸업생들이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또는 유치원 정교사(2급) 등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.

백석대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통해 통학이 가능하다. 서울·경기·인천 등 수도권 17개 지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, 교통이 매우 편리한 대학이다. 또 기숙사(백석생활관)는 현재 1천750여명 규모의 기숙사생을 수용하고 있다.

최근에는 'BU Vision 2025'를 통해 ▲ 인프라 및 시스템 혁신 ▲ 교육 운영 혁신 ▲ 지역사회 산학협력 혁신 ▲ 글로벌 혁신 ▲ 대학구성원 혁신 대학을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주목되는 대학이다. ▼



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
2020.09.23.(수)~2020.09.28.(월)

디자인영상학부 2015학번 송나라 학생 공모전 선정작